



상월대조사기 배구대회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8월 10일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제30회 상월원각대조사기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에
이승규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은 24일자로 임기 2년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백양사서 여름 선 수련회
법산 한국선학회장(동국대 정각원장)은 16~18일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주제로 장성 백양사에서 여름 선 수련회를 개최했다.



삼천사 마애불 친견
세영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회원들과 함께 27일 북한산으로 삼천사 마애불 친견 등이 포함된 7월 산행을 다녀왔다.



검찰 인사위원으로 위촉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는 24일자로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구성원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예비승직자 교육 실시
법공 총지종 총리원장은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시무(예비승직자)교육을 실시했다.



선덕사서 회원정진법회
행법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상임대표는 22일 광주 선덕사 3층대법당에서 회원정진법회를 봉행했다.



개교 1주년 기념 전시회
이점원 경주 불자학교(경주전통문화체험학교)장은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학교에서 개교 1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실달학원 기본교육생 모집
해자 서울 도선사 주지는 9월초부터 3개월간 열리는 도선불교실달학원 기본교육생을 모집한다. (02)993-3161



청소년 연합캠프 개최
해명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연합회장은 27일부터 30일까지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캠프를 연다.



현승스님 초청 법회 봉행
김철운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장은 21일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열고 미국 육사종 현승스님 초청 법회를 가졌다.

환경운동가 영웅주의 폄하는 잘못

‘북한산’ 릴레이 단식 참석 법타스님



“참여정부가 북한산 관통노선을 강행하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전부는 아니었다.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혁 기자

“참여정부가 북한산 관통노선을 강행하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전부는 아니었다.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혁 기자

자비·사랑으로 장애·편견 극복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공동대표 정각 스님



“종교, 종파를 초월한 종교인들의 모인인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사랑과 자비로 장애와 편견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23일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공동대표로 취임한 정각스님(부산 미통사 주지)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인들의 본질은 하나이며 사랑과 더불어 울고 웃는 종교인이 진정한 종교인”이라며 종교인의 대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연변 동포 돕기를 비롯, 부산불교자비원, 청정화합시민연대 등을 이끌며 종교가치의 실현에 힘쓰고 있는 정각스님의 면면이 잘 드러나는 말이다. 그동안 기독교의 정영문 목사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아온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95년 창립되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의 종교인들이 종교간 화합에 앞장서 왔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2003년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세미나와 장묘문화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 28일에는 종교화합제를 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수환 추기경 초청, 특별 초청 강연회도 계획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평화의 종불사 동참하세요”

휴전 50주년 기념식 참석 미 태고사 무량 스님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인간이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온갖 혼란이 일어나는 것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불교는 이런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의 종을 건넬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간 참전했던 부친 버릴 씨가 오는 27일 열리는 정전협정 50주년 기념행사에 한국정부의 초청을 받게 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을 다시 찾게 됐다. “우리 부자는 한국에 대해 서로 다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과 ‘불교’입니다. 함께 한국을 찾는 이유도 부자간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방한 기간 동안 아버님께 한국 전통불교문화 속에 스며있는 평화정신과 아름다움을 소개하면서, 직면한 한반도 위기상황에 평화적 해결방안을 불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무량스님은 특히 미국 태고사에 한국인의 평화연원을 담은 평화의 종과 종자 건립을 소개하며 불사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석우문도회 대표자 연석회의



동화사 석우문도회대표 현부는 23일 팔공산 부인사에서 문도대표자연석회의를 갖고 한국불교종흥에 적극 협력키로 결의했다. 동화사 석우문도회는 설석우 대선사 행장집 발간을 위해 사진, 법어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문의 (053)982-0101, 문도회 간사 011-831-4480(진담)

평불협, 선본사에서 통일연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는 19~20일 대구 팔공산 선본사와 영천 은해사에서 2003년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통일을 주제로 한 주제강연, 통일법당건립 불사 발원 정진 등이 진행됐다.

김경복 달마회 회장 별세

대한불교 달마회 김경복 회장(사진)이 7월 22일 저녁 별세했다. 향년 70세. 김경복 회장은 57년 동국대 법학과 졸업후 동국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남가주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66년 국방부 국방대학원 연구관을 시작으로 30여년 동안 경제기획원 통계청 등에서 근무했다. 이경숙 기자



청 등에서 근무했다. 78~87년 대한불교청소년교회연합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86년부터 대한불교 달마회 회장을 맡아 재가불자 교육과 포교에 헌신해 왔다. 발인은 7월 24일 서울대 병원 영안실. 이경숙 기자

방글라데시 노동자·불자의 만남



조계종자비봉사단 부산-경남지부는 부산보현의 집 주관으로 방글라데시 산업연수생 및 근로자와 한국 불자 70명의 ‘만남의 자리’를 20일 부산직선사회관 한식뷔페에서 개최했다. 자원봉사단과 보현의 집은 앞으로 매달 셋째주 일요일마다 모임을 갖는다.

사관후보생 환송 및 환영법회



영천 3사관학교 충성대호국사는 20일 ‘사관후보생 41기 환송 및 42기 환영법회’를 개최했다. 법회는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대구경관청 경승실장 원각스님을 비롯 사관후보생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성스님은 “이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예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 사랑의 명절 - 칠석기도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담겨있는 음력 칠월칠석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아우른 우리나라 고유의 지렁스런 사랑의 명절입니다. 오는 8월 4일 월요일(음력 7월 7일) 오전 10시, 칠석기도에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백중기도 및 회향안내

우리절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불교의 천도명절인 우람분절 백중기도기간을 맞아 불자님들의 선망조상영가님들을 위하여 칠칠재를 봉행하며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회향법회가 봉행됩니다.

☞ 제 2차 천삼십일기도 회향

지난 2000년 11월 5일부터 시작한 제2차 천삼십일기도가 오는 8월31일 오전10시 조계총림 송광사 율원장이며 부산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두송자활후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계신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대화상을 모시고 마침내 회향을 맞게 됩니다. 보다 아름다운 회향이 되도록 불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